

“내란 사태 피해 최소화”...광주시, 민생안정대책반 가동

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3개팀 구성...민생안전 최우선 추진

광주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가동한다.

광주시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민생불안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민생안정 대책반”은 이날부터 고광안 행정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지방행정·지역경제·안전관리 3개의 팀으로 구성해 민생과 경제안정, 재난 관리 등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한다.

주요 중점 추진분야는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유지 등 당면현안 및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정상 추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행·재정적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등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 대비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 전개 등 재난 안전관리 철저 ▲공직자로서 품위 및 정령 의무 지, 비상연락체계도 정비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민생안정대책반장을 맡은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역민생안정 대책반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란사태에 더욱 생각하게 되는 '인권'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시민들이 인권선언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무기한 연기

국조실, 13일 회의 계엄 여파 등 고려해 최종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 주도 광주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 협의(광주일보 12월 10일자 8면)가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부조실장은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국토교통부, 행안부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간 회의 개최하기로 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계엄 사태 3일째인 지난 5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공군본부 등 4개 기관 실무진은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회의실에 모여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회의일정을 조율하는 등 회의 개최에 대

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회의가 2021년 5월 제2차 회의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일단 정부 주도의 실무적 첫 회의라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엄 파동으로 군공항 이전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 등을 감안해 회의 연기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엄사태와는 별개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농기원, 양파 경쟁력 강화...신품종 개발 총력

구미젤리·양파당 등 가공제품 출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 주요 생산 품목인 양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품종 개발과 가공제품 사업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10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양파 신품종을 기반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급률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양파 종자 시장이 397억 원 규모에 이르는 데도, 국산 품종 자급률은 35% 수준에 불과해 많은 양파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파의 자립종 종자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가공 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중만생종 ‘금승

이’ (2021), ‘아리아리랑’ (2020), 중생종 ‘스리랑’ (2020), 극조생종 ‘파랑’ (2017) 등의 품종을 개발, 공급해왔다.

이들 품종은 꽃을 피우기 위해 줄기를 길게 뽑는 ‘추대’와 뿌리가 나뉘지는 ‘분구’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 재배가 가능해 무안과 함평 일대 160ha에서 재배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산과 대등하거나 품질이 뛰어나 재배 농가와 종묘 업체들의 반응도 좋다는 게 농업기술원 설명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또 양파 전초와 구근을 활용한 가능성 강화 제품과 구미젤리·조미용 분말·양파당과 셀러드레싱 등 세대별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치적 위기 상황’ 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연기·국제교류 취소

탄핵 촉구 릴레이 단식도 진행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탄핵 표결 무산 등으로 엄혹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 이날 예정된 국제교류(대만)·해외 출장(일본)을 취소한 데 이어 내년 초 예정된 의원 국외연수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재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역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에도, 국정 혼란과 정치적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

큼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9일부터 무안군 남악읍 도청 앞 사거리에서 하루에 4명씩 릴레이 단식을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으로 물든 겨울밤 산타 거리 걷는다...전남 축제 ‘풍성’

함평 겨울밤 빛축제·담양 산타와만남 등 해남이·해맞이 행사 다양

함평 겨울밤 빛축제·산타 섬겨울꽃 축제·담양 산타와만남 등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남이·해맞이 경관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남도는 자신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진행되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선 미디어아트의 거장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빛과 예술의 아트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을 운영하고, 토요일 저녁 콘서트와

EDM파티를 통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에서는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분재 정원 내 3km에 이르는 에기동백 숲길에서 피어나는 4000만 송이의 에기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활출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플라워월드와 플라워아치 등 포토존도 조성돼 겨울 정원의 매력을 더한다.

담양에서는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 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한다.

또 12월 31일과 1월 1일 2024년 갑진년을 마무

리하는 해남이 행사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5개 시·군에서 열린다.

해남이·해맞이 행사는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열리고, 보성에선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해남 땅끝 전광대, 진도 세방낙조 전광대, 여수 향일암, 순천 와온해변, 보성 울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만나는 해남이·해맞이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군마다 음악회, 불꽃쇼, 드론쇼, 떡국나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특색을 더하고 있다. 무안에선 2025년 1월 20일부터 이틀간 해제면에서 겨울 송어축제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인 황금송어 잡기와 퀴즈대회, 송어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판매행사를 통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부	21	8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민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